

## 서 면 질 문

○질문분야 :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질 문 내 용	비 고
<p>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의 일부 구간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울산숲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따라 울산시계부터 송정지구까지 13.4ha, 6.5km에 달하는 대규모 선형 도시숲으로, 사업비만 122억3천800만원이 투입된 우리 구 핵심사업입니다.</p> <p>향후 백년 이상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고 조성된 숲인 만큼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마련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다만,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도시숲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울산숲이 타 지역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주민을 위한 명소로 성공적인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우려섞인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p> <p>따라서, 저는 울산숲 관리 및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등 2만4천120그루의 각기 다른 수종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축도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울산숲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답변바람.</li><li>2. 당초 울산숲 조성 계획에서는 이화정 구간과 신천 구간, 호계 구간과 송정 구간 사이에 각각 울산시가 추진하는 '바람길숲'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음.</li></ol>	

질 문 내 용	비 고
<p>이화정·신천 구간 사이 중산IC지구 바람길숲의 조성이 마무리된 것과 달리 호계·송정 구간 사이 바람길숲은 여러 문제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하여 울산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바람.</p> <p>3. 현재 열섬효과를 차단해 기온을 낮추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도시숲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될수록 도시숲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TO)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최적 면적을 15m<sup>2</sup>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정된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이 완료되면, 북구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추가로 울산숲 혹은 도시숲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p> <p>울산숲은 우리 구에 터잡을 주민 모두를 위한 곳입니다. 울산숲을 누리는 주민이 많아질수록,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에 작은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p> <p>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울산숲이 백년을 넘어서 울산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숲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답 변 내 용	비 고
<p>1.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 단풍나무 등 2만4천120그루의 각기 다른 수종을 관리하는 데는 장기적으로, 전문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 화장실 등 편의시설 구축도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울산숲의 종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을 답변바람.</p> <p>울산숲 조성 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숲 관리를 위해 2024. 1. 1.자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숲지원팀이 신설되어 울산숲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문적인 숲 관리를 위해 전문 직위(전문관) 제도를 활용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p> <p>‘2024 울산숲 운영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연과 사람을 잇는 지속가능한 명품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4대 전략 18개 과제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명품숲을 위한 전문적 유지·관리’, ‘머물고 싶은 힐링숲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업·단체·주민 참여 활성화’, ‘울산 대표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p>특히 민간기업· 단체·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외 홍보영상 및 책자를 제작하여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민간기업 및 단체 ESG 경영활용의 기업 도시숲 조성을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3월 중 울산숲 가꾸기 지원봉사 단체을 모집하여 구간별 숲가꾸기 활동을 통하여 주민 참여형 울산숲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p> <p>4월에는 ‘제1회 울산숲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울산숲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행사 및 공연을 유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찾아 오고,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울산 대표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	

답 변 내 용	비 고
<p>울산숲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민원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화장실 설치요구가 가장 많은 바, 화장실 2개소 설치를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또한 울산숲 인근 병원, 카페 등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울산숲 이용자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 에티켓 안내판 등 각종 안내판 및 현수막도 전 구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안전한 숲길 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숲 CCTV 설치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이며,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설치를 위해 울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p> <p>또한, 울산숲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관련부서에 요청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 당초 울산숲 조성 계획에서는 이화정 구간과 신천 구간, 호계 구간과 송정 구간 사이에 각각 울산시가 추진하는 ‘바람길숲’ 사업이 예정 되어 있었음. 이화정·신천 구간 사이 중산IC지구 바람길숲의 조성이 마무리된 것과 달리 호계·송정 구간 사이 바람길숲은 여러 문제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하여 울산시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답변바람.</p> <p>동해남부선 폐선부지(호계 ~ 송정)구간인 창평동 일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현재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용역 중에 있어 당초 울산시에서 계획 중이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p> <p>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창평 구간 숲 조성 등 사업추진을 울산시에 요청 할 계획입니다.</p>	

답변내용	비고
<p>3. 현재 열섬효과를 차단해 기온을 낮추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도시숲이라는 의견이 많아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될수록 도시숲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TO)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최적 면적을 15㎡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올해 예정된 울산숲 송정구간 조성이 완료되면, 북구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며, 추가로 울산숲 혹은 도시숲 확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람.</p> <p>2024년 2월 기준 북구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302.71ha로 1인당 13.94㎡이며, 송정구간(3.2ha)이 조성완료되면 총 면적 305.91ha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4.09㎡가 됩니다.</p> <p>현재 울산시에서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트램 2호선 노선 최적지를 선정 및 검토 중에 있으며 2025년 9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2.6km의 송정에서 효문까지 폐선부지에 대해서는 추가 울산숲 조성 등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p>	